

신문에 다 못 담은 심층정보... 조선닷컴 '클릭! 취재 인사이드' 호평

15일부터 9일간 순수 클릭 수 151만건... "참신한 접근"

“조선닷컴에선 매일 재밌는 뉴스를 신겠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또 매일 성공적으로 콘텐츠를 싣고 있는 게 대단하다.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새 ‘클릭! 취재 인사이드’ 기사가 실렸나 하는 궁금증과 설레는 마음으로 조선닷컴을 여는 맛이 쏠쏠하다.”(김경준·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이다. 어느 신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접근인데다 내용도 깊고 있고 풍부해 대만족이다.”(정규창·한국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 부회장)

조선닷컴(www.chosun.com)에서 이달 15일부터 시작한 ‘클릭! 취재 인사이드’ 코너가 세간에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클릭! 취재 인사이드’는 편집국 디지털뉴스부 주도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명의 기자들이 신문 지면에서 소개하지 않은 심층 취재 정보와 뒷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인데, 이달 25일까지 9일 동안 17개의 기사가 실렸다.

이 17개의 기사가 조선닷컴에서 유발한 순수 클릭수(페이지

뷰·PV)만 151만건이 넘었고, 100자평 댓글은 총 979개였다. 기사 한 건 당 평균 8만 8800여 건의 클릭이 이뤄졌고 평균 58개의 댓글이 달린 셈이다.

이는 조선닷컴에 게재되는 조선일보 당일치기 지면 기사나 일상적인 뉴스 속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클릭수로 조선닷컴 만의 고품질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갖는 영향력과 파괴력을 영향력을 보여준다. (상위 5개 인기기사 표 참조)

신문 지면에 소개되지 않은 ‘닷컴 온리(only) 기사 콘텐츠’를 매일 두건 정도씩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는 사례는 국내 미디어에서 조선닷컴이 유일하며, 해외 언론 매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시도라는 평가이다.

이 코너를 맡고 있는 송의달 디지털뉴스부장은 “조선닷컴 활성화와 부흥을 고민하던 중 강효상 편집국장이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지면에 못다 쓴 얘기나 심층 정보를 분량 제한없이 마음껏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회를 닷컴 공간에 마련하자’며 코너 신설 아이디어를 제공했



‘클릭! 취재 인사이드’ 최근 상위 5개 인기기사

* 기간 : 4월 15일~4월 25일

순위	기자 (소속)	게재일	기사 제목	클릭 히트 수	댓글 수
1	호경업(산업부)	4.16	김승현 한화 회장의 감옥생활	16만 8894	65
2	최재혁(정치부)	4.15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탐구	14만 2068	214
3	정지섭(대중문화부)	4.23	월드 스타 사이의 'B급 학창시절'은?	12만 9207	62
4	박은주(문화부)	4.25	김정남의 외삼촌 성일기씨의 80년 증언	11만 8119	82
5	김혜림(주말뉴스부)	4.24	이외수 혼외 아들 못 쓴 이야기	10만 4861	127

매일 두 건 정도씩 게재 타 매체에서 볼 수 없는 파격 최다 클릭 건수 낸 기사 선정 포상금·인사 가산점 부여키로 송의달 디지털뉴스부장 “강효상 편집국장의 아이디어 대표 명품 코너로 키울 것”



다”고 말했다. 시작한 지 열흘 여만에 부장급 기자(박은주 문화부장·26기)부터 6년차 기자(윤주현 사회부 법조팀·48기)는 물론 자매사인 헬스조선의 흥현포 편집장까지 참여해 필력과 취재 역량을 맘껏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는 조선일보 편집국을 포함해 TV조선, 조선비즈, 헬스조선,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 조선미디어 계열사 소속 모든 기자들과 미디어 경영직에도 문호를 활짝 개방, 단편적 정보나 신변잡기류가 아

닌 최고의 콘텐츠라면 소속이나 직위와 상관없이 언제든 적극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주와 매월 단위로 최다(最多) 클릭 건수를 낸 기사를 선정해 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 고과평가시 가산점도 부여키로 했다. 송의달 부장은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를 이루려면 양질의 ‘조선닷컴 온리’ 콘텐츠가 많아야 한다”며 “조선미디어를 대표하는 명품 코너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수·디지털뉴스부

TV조선 조정린 사우, 싸이 취재진 대표로 인터뷰... 각종 포털사이트 장식

얼굴

기자 변신 조정린 사우에게 싸이 “목소리 톤 변했다” 조 사우 “평소 모르는 사이”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가수 싸이를 취재하는 TV조선 조정린 사우에 관한 기사가 여러 연예 관련 포털과 뉴스사이트를 장식했다.

조정린 사우는 싸이 취재진을 대표해 싸이 바로 옆에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찍혀 인터넷 사이트에 뿌려졌다. 조 사우는 취재당시 미국에서의 프로 모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뉴욕에서의 첫 스케줄이 무엇 인지를 물었는데 싸이가 그에 대한 대답 대신 “목소리가 미디어적으로 변했다”고 조 사우의 변신을 놀라워해 주변에 웃음을 안겼다.

이에 대해 조 사우는 “사실, 싸이씨와는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다”며 “현장에서 많이 긴장해서 목소리가 경직돼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MBC ‘팔도모창가수왕’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조 사우가 ‘강인, 조정린의 친한친구’ DJ, ‘섹션TV 연예통신’ 리포터 등으로 얼굴이 알려지면서 싸이도 조 사우를 알고 있었고, 이번에 기자로서 취재에 나서자 놀라움



을 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 사우는 또 노래 ‘젠틀맨’이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지를 묻고 국민에게 한 말씀을 부탁했다고 한다.

조 사우는 “공항 취재 현장에서 원래 다른 방송사 선배가 대표 취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 싸이 취재를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욕심에 선배 기자에게 ‘내가 대

표취재에 나서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줬다”고 설명했다. 조정린 사우는 작년 9월 입사해 문화스포츠 부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새내기 기자이다. 사보팀